금주의 법구-〈법구경〉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를 사는 최선의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3월 3일)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세계불교비구니협회의 첫 공식대회가 열린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는 12개국 비구니스님 500여 명이 참석해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했다. 특히 대만대표단 스님 100여 명이 연화등을 들고 무대에 올라 '옴마니반메훔'을 합송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대만전통 공양의식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세계 비구니, 남북통일 염원하다

세계불교비구니協, 12일 한국서 '비구니평화대회' 개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만 중화불교비구니협진회를 중심으로 12개국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 조직한 세계불교비구니협회가 국내서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협회 조직 후 첫 행보인 데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규모의 비구니 스님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세계불교비구니협회(회장 보휘)는 4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서 '남북통일을 위한 세계불교 비구니 평화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16년 11월 창립된 세계불교비구니협회 첫 공식대회로 국내서는 세계불교비구니협회 한국지회(지회장 화정)와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가 참여했으며, 대만 · 말레이시아 · 태국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스리랑카 · 영국 · 미국 · 베트남 등 12개국 비구니 스님 5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의 결집을 축하하고자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대회는 비구니 의현 스님의 평화를 위한 법고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어 대만 비구니 스님 100여 명은 작은 연화등을 손에 들고 무대에 올라 '옴마니반메훔'을 합송하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대회장인 세계불교비구니협회 한국지회장 화정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물이란 말은 물이 아니고, 통일이란 말도 말이 통일일 뿐"이라며 "분단된 세월만큼 남북은 서로 성숙했다. 우리 모두 무위의 세계를 성취한다면 남북통일은 꼭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로 단상에 오른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화엄경〉 제20 야마공중게찬품 각림보살 게송인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를 읊으면서 부처님의 성도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스님은 "세계불교비구니 평화대회 봉행이 남북통일 성취발원과 동서평화 달성 기원으로 이어져 전 인류의 성불인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회 창립 후 첫 공식대회
500여 회원 대중 서울 결집
전쟁 불식 · 세계평화 기원해

"남북 평화에 불교 앞장서야"
12개국 비구니 스님 '한마음'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치사에서 "불교교단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각국 불교계서 평화와 복지, 문화, 소수자에 대한 인권, 여성에 대한 문제 등 비구니 스님들 성과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비구니 스님들이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세상 모든 약자들의 든든한 친구가 돼주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건강문제로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세계불교비구니협회장 보휘 스님은 부회장 홍안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세계불교비구니협회는 새로 설립된 세계적 단체이기에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관습적 차이를 갖고 있다. 이에 승단은 화합을 원칙으로 삼아 육화를 엄격하게 준수한다"며 "말법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법이 세간에 머무르고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 자비정신을 되살려 널리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협회 목적을 밝혔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오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갈등을 극복하자는 서원이 바탕이 된 까닭"이라며 "비구니 스님들이 앞장서 세계 각국에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축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제교류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남북이 전쟁의 악업을 끊고 분단의 고해를 건너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제자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세계불교비구니평화대회는 오는 4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불교비구니협회 역시 이를 인지하고, 타국에 비해 비구니조직이 탄탄하게 갖춰진 한국을 첫 대회지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세계불교협회장을 대리해 참석한 부회장 홍안 스님은 본지 인터뷰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비구니조직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분단국가의 통일이 세계평화를 이끌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면서 "분단의 세월이 길었던 만큼 단시간에 통일이 되긴 어렵겠지만 세계 비구니들은 앞으로도 두 나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원로의원 우송 · 현호 · 일면 · 원행 스님

제58차 원로회의서 만장일치 선출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으로 우송 · 현호 · 일면 · 원행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4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58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서 신임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네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덕사 우송 스님은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정혜사서 인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대 중앙종회의원과 수덕사 주지, 덕숭총림 선원장 및 유나를 역임했다.

송광사 현호 스님은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상백운암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10대 중앙종회의원과 송광사 주지, 법련사 주지를 역임했다.

봉선사 일면 스님은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과 1967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9~13대 중앙종회의원과 호계원장 ·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봉선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우송 스님


현호 스님


일면 스님


원행 스님

월정사 원행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0년 월정사서 희찬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과 초심호계위원, 구룡사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남북회담일, 광화문서 금강경 독송 울린다

날마다좋은날 27일 '2만 수보리 합창'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4월 27일 전국 불자 2만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금강경〉을 독송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은 4월 2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만 수보리의 합창-금강경 독송 정진'을 개최한다.

금강경 독송 정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들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대표 스님, 중앙신도회 임원진과 포교사, 정관계 인사, 포교 · 신도단체 회원 등 전국 400여 사찰에서 불자 2만여 명이 운집할 예정이다. 사전행사로 오후 4시부터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한반도 평화를 발원하는 평화의 불을 점화도 이뤄진다. 또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발원문 낭독 등도 이뤄진다. 노덕현 기자

